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리즈대학교 (University of Leeds) / 교통계획 및 공학 (Transport Planning & Engineering)	(국가) 영국
기 간	2012. 9. 17 ~ 2013. 9. 16	[귀국일: 2013년 9월 25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리즈대학교가 위치한 리즈(Leeds)시는 잉글랜드 북부, 영국 섬 전체로 보면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자동차로 3시간여, 기차로는 2시간20분, 비행기로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까지 이동하는 시간과도 비슷하다. 리즈와 런던 사이에는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1번 고속도로(M1)로 연결되어 있고, 런던 인근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연결하는 A1 간선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 기후는 흐린 날씨, 강한 바람, 잦은 날씨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우울한 분위기이다. 특히, 겨울철(11월 말 ~ 2월 말)은 우기로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연중 기온의 변화가 크지 않고 집중호우가 드물어 기후로 인한 재난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최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즈를 포함한 잉글랜드 북부지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도 2013년 초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와서 한동안 뉴스 머리기사를 장식한 적이 있다.

잉글랜드 북부지역, 특히 리즈 한인 커뮤니티는 런던을 포함한 남부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 리즈 시내에 한인마트는 없었으며 가장 가까운 한인마트는 자동차로 30~40분 거리의 요크(York)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기본적인 식자재(된장, 고추장, 쌀)와 라면 등은 시내에 있는 대형 중국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했으며 과일과 채소는 TESCO, Sainsbury's 등의 대형마트와 아웃도어 마켓에서 구입하였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음식문화가 가장 발달하지 못한 나라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리즈에서도 가끔씩 가족들과 외식을 시도했지만 가격에 비해 맛이 좋지 않아 여행 때를 제외하고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전기와 가스, 수도, 교통 요금 등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싼편이다. 예를 들어, 리즈시를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민간업체가 보조금 없이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요금이 상당히 비싼편이고 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진다. 평일 저녁 7시 이후부터는 한 시간에 한 대만 운행하며 주말 주간 배차 간격은 20~30분의 한 대 꼴이다. 다른 공공인프라(전기, 가스, 수도) 역시 요금이 비싼편이며 이 때문에 생활비의 상당부분이 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그나마 리즈시는 런던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집 임대료가 남부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방 세개 짜리 단독주택 기준 월 800~900 파운드 수준이며 아파트(영국에서는 "flat"이라고 함)의 경우 훨씬 더 저렴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영국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며, 리즈의 경우 한 겨울에도 섭씨 영하 4도 이하를 내려간 적이 없었다. 기온 자체로 보면 온화한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집안 실내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온돌식 난방시스템이 아니라 라지에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보온이 잘 되지 않는다. 난방을 할 때만 따뜻할 뿐, 라지에터를 끄고 동시에 집안에 냉기가 돌기 시작한다. 겨울철에는 햇빛도 드물어 집안이 더욱 쌀렁하게 느껴진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기요를 필수품으로 챙겨온다. 영국에서도 전기요를 살 수 있지만, 대부분 크기도 작고 고온까지 올라가질 않아 한국에서 가

저온 전기요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만 보서는 영국이 참 살기 힘든 곳이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장점도 많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푸른 자연환경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리즈는 인구 80만명 정도로 City 인구 규모로 치면 영국 내에서 3~4번째에 해당되는 대도시이다. 산업혁명 직후에는 산업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 중의 하나였다. 전형적인 상업 도시이기는 하지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나가면 푸른 초원과 풀을 뜯는 양 떼의 모습이 펼쳐진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와 같이 높고 규모가 있는 산맥은 없지만, 녹색의 완만한 구릉지로 이뤄진 자연환경은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다. 본인이 거주했던 단독주택의 뒷 마당에는 고슴도치와 청개구리, 다람쥐 등이 수시로 나타나 어린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 했다. 한국의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환경, 주거환경이 영국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다. 이와 함께 영국의 교육 시스템도 잊지 못할 기억이다. 자녀들은 리즈에서 초등 1학년 (Year 1)과 유치원(Nursery)을 다녔는데, 영국에 입국한 지 일주일만에 집 근처 학교에 배정받아 교육을 받았다. 두 아이 모두 한국에서는 알파벳도 배우지 않고 영국으로 향했지만, 현지 초등학교에서는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언어 담당 선생님의 맞춤형 스터디를 제공하였다. 아이들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학교의 따뜻한 배려와 가르침으로 두 아이 모두 어렵지 않게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초등학교 마다 시스템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않고 "가고싶은 학교"를 만들려는 영국의 초등교육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참고로, 영국의 초등학교는 9월 기준으로 학년을 구분하며, 만 3세는 Nursery로 주 15시간 무상교육이며, 만 4세부터는 주 30시간 (오전 9시 ~ 오후 3시)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는 지인을 통해 알게되었다. 본인은 대학 시절 토목공학을 전공했으며 도로교통 기관에 몸 담고 있어, GMP 2년차 교육은 교통공학 전공을 희망했지만 KDI School과 MOU가 체결된 학교 중에 교통공학(Transport Engineering) 과정이 없어 고심하고 있던 차에 유학 설명회를 통해 영국 석사과정은 1년이며 admission만 받는다면 원하는 전공으로 2년차 교육을 마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다만, KDI School과 연계된 대부분의 미국 학교와 달리 영국 석사과정은 대부분 9월 학기에 시작하며 모든 입학지원 과정을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러웠다. 또한, 미국 학교를 염두하고 TOEFL을 한 달 가까이 공부하고 있던 차에 IELTS로 전환한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원하는 전공(교통공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과, 교통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긍지를 갖고 리즈대학교 교통대학원 (ITS, Institute for Transport Studies)를 선택하게 되었다.

리즈대학교 ITS는 세계적으로 교통 분야 최고 수준의 대학연구기관으로 평가받으며 2009년에는 수준 높은 연구성과와 사회 기여도를 인정받아 영국 여왕으로부터 수여되는 Queen's Anniversary Prize를 수상했다. ITS 내 교통 석사과정은 총 5개 분야 (교통경제 MA,

교통계획 MSc, 교통공학 MSc Engineering, 교통환경 MSc, 지속가능 교통 MSc)로 나뉘지며 총 인원은 약 70여명 정도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국을 비롯해 EU회원국, 아프리카, 미국, 중국 등이 주를 이루며 2012/2013년 석사과정에서 한국사람은 본인 혼자였다. 전공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석사과정은 강의 두 학기 (9~1월, 2~5월), 논문 한 학기 (6~9월), 총 세 학기로 구성된다. 리즈대학교 교통공학 석사과정의 경우, 첫 학기 때 전공필수 4과목, 두번째 학기 때 전공선택 4과목을 수강하며, 마지막 학기 때 논문을 작성하게 된다. 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필히 논문을 제출해야지만 석사학위(Degree)가 수여된다.

본인이 경험한 영국 석사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피드백(Feedback)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의와 더불어 진행되는 세미나, 실습, 튜터링 등 강의기간 내내 빡빡한 일정으로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철저한 피드백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과제(Coursework) 및 시험은 각각 표절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우 엄격히 관리된다. 과제와 시험 점수를 합쳐 50점 이상을 얻게 되면 해당 과목을 Pass 하게 되는데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 낙제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시험과 과제를 무사히 통과한다 해도 15,000자 논문의 심리적 압박은 상당하다. 주제 선정부터 중간 1, 2차 발표, 마지막 제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방법에 대한 훈련이 강도 높게 이뤄진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리즈대학교 교통대학원(ITS)의 경우 첫 학기는 전공필수 만을 수강하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두번째 학기부터는 본인의 논문 주제와 밀접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 주제를 1학기 중에 결정하여 2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까지는 어느 정도 논문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 2학기 과목 중에는 부활절 휴일기간을 이용한 집중 강의(Short fat module)도 개설되므로 시간 계획을 잘 세워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본인은 어린 자녀 두 명을 포함하여 총 네 명의 식구가 영국에서 거주했다. 조기에 마감되는 가족형 기숙사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출국 직전 한국에서 현지 한인의 도움을 받아 단독주택을 계약하여 영국에 입국하자마자 입주를 하였다. 영국 초기 정착 기간은 주거지가 얼마나 빨리 정해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입국 전 미리 한인 커뮤니티나 KDI School 전임자를 통해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빨리 정해져야 아이들 학교, 의료보험, 인터넷 개통 등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된다.

음식같은 경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리즈지역은 한인마트가 없고 외식할만한 곳도 마땅치가 않아 아내가 많이 고생했다. 식자재는 런던지역의 한인마트로부터 택배로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재료는 중국마트에서도 취급하므로 특별히 배달 받진 않았다. 또한 대형마트보다는 아웃도어 마켓의 야채, 과일이 훨씬 저렴하여 주로 이 곳에서 구입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바쁜 공부 일정 속에서도 틈틈히 가족 여행을 시도했다. 영국 석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여행 기회를 갖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휴가기간, 부활절 휴가기간, 논문학기 시작 전, 아이들 방학기간으로 크게 네 차례로 나눌 수 있다. 상기 기간은 여행 성수기므로 여행비용이 만만치 않아 좀 더 저렴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전에 계획을 세우고 항공편이나 숙소를 예약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로 장기간의 유럽대륙 여행을 계획한다면 예약시기에 따라 숙소 값의 차이가 크므로 일찌감치 동선을 정하고 바로 예약에 들어가야 한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영국에서의 GMP 2년차 학업은 만만치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우선 KDI School에서 취득한 Transport 관련 학점을 인정받지 못했던 점과 논문 통과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적 압박감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같이 의논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본 과정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이 학업을 더욱 힘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럴 때 마다 내가 영국을 선택한 이유, 곁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특히, 영국 교육 및 문화에 잘 적응해 행복해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가 선택한 이 길 만큼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신념으로 2년차 교육을 잘 마칠 수 있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영국은 6개월 이상 거주 시 비자가 필요하다. 본인이 받은 학생비자(Tier-4)의 경우 출국일 한달 전부터 교육 완료일 이후 약 4개월까지, 다시 말해서 학업기간 12개월을 제외하고 약 5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비자가 나오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모두 영국의 무상 의료서비스, 공교육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비자기간 중 인근 타 국가를 방문 후 재 입국 시에는 규정에 따라 여권 검사와 간단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본인은 KDI School 입학 무렵 GMP 2년차 과정을 미국의 제휴 대학에만 국한시켜 생각을 해왔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참석하게 된 영국유학 설명회를 통해 영국에서의 GMP 2년차 학업이 그 동안 쌓아 온 업무경력과 향후 미래계획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내가 원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무작정 도전을 했다. TOEFL에서 IELTS로의 전향, 영어점수 취득, 9월 입학 일정에 맞춘 조기 admission 과정, KDI School 강의 및 과제 및 출

국 준비 등 1월 LPM과정부터 8월 말 출국 전까지의 KDI School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런 기간이 없었더라면 영국에서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경험도 없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2년차 학업 과정과 더불어 영어시험과 병행하는 1년차 학업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겠지만 미래를 꿈꾸며,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시기 바란다. 업무 복귀 후에는 힘들었던 이 시간마저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테니깐...

